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Change*

이주리(Ju Rhee Lee)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rajectories of change in the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academic achievement as predictors of change. The 2844 participants were 1524 boys and 1320 girls in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They were fourth graders in 2004 and became seventh graders in 2007.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dicated that : (1) Trajectories of change in career maturity from fourth grade to seventh grade modeled quadratic growth. (2) Variance of career maturity in initial levels, linear slope and quadratic slope indicated individual differences intrajectories of change in career maturity. (3) Attachment to parents influenced initial levels of career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influenced both initial levels and linear slope of career maturity.

Key Words :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발달궤적(Trajectories of Change), 초등학생(Elementary Students).

I. 서 론

진로성숙도는 Super(1955)에 의해 최초로 개념화 된 용어로서(김정원 · 김옥인, 2007; 박완성, 2007; 차정은 · 김아영 · 이은경 · 김봉환, 2007, 재인용), Crites(1978), King(1989), Ohler, Levinson 와 Hays(1996) 등에 따르면, 자신의 진로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며 자신의 진로 선택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Levicson, Ohler, Caswell, & Kiewra, 2001, 재인용). 따라서, 이는 학령기 아동 ·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Creed, Prideaux와 Patton(2005) 은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의 결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8

* 본 연구는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¹⁾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 Rhee Lee, Department of Child-welfar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E-mail : julie@cau.ac.kr

학년 때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10학년이 되었을 때 진로 미결정 학생보다 진로 관련 역량(성숙,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 등), 안녕감(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과 사회적 성과(학업성취 및 유급 고용 경험 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진로에 대한 준비는 개인적 발달 및 삶의 질과 연관될 뿐 아니라 직업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발달단계의 특성 상,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여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함으로써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년 실업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로 성숙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진로성숙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김수리·이재창, 2007; 김정원·김옥인, 2007; 박완성, 2007; 유우경·조아미, 2007; 이윤주·현정화, 2003; 차정은 외, 2007; 황매향·임은미, 2004). 그러나, 현재 다양한 형태의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들의 설립 등으로 인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뿐 아니라 초·중학생들에게까지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국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는 문제점인데, Hartung, Porfeli와 Vondracek(2005)도 아동의 직업 발달(Vocational development)과 관련된 연구들은 충분히 논의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과 성인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Keller와 Whiston(2008)은 진로성숙도를 발달적 개념으로 언급한 바 있다. Hartung et al.(2005)도 문헌 연구를 통해 진로성숙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밝혔다. 그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준비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달한다는 과거의 연구(Gribbons, 1964; Lehman & Witty, 1929) 뿐 아니라 유사한 결과의 비교적 최근의 연구(Walls, 2000)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진로성숙도의 발달경향성을 검증한 연구가 있는데, 차정은 외(2007)의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 중 직업의식, 학과지식 및 진로행동 등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성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성숙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하여 추적한 종단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연령의 대상을 각각 표집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집단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한 이원변량분석을 적용하여 개인차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진로성숙도는 발달적 개념이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종단자료를 활용한 발달궤적의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발달궤적이 선형 성장 모형인지 혹은 2차 함수인 제곱 성장 모형인지 등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것이 요구되며 그러한 발달궤적에 개인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잠재성장모형(LGM)으로 분석이 가능하다(Garber, Keiley, & Martin, 2002).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패턴이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한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 개인차가 나타난다면, 그러한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무엇인지 예측변인의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홍세희,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4년 종단자료를 토대로 초등학교 4학년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까지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발달궤적을 규명하고, 그 발달궤적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Lent(2005)에 따르면, 최근 진로 이론에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환경적, 개인적 요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김수리 · 이재창, 2007, 재인용). 첫째,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 학교, 또래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부모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도 여전히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의 역할을 함으로써(Furman & Buhrmester, 1992) 부모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매우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 된다(Hartung et al., 2005; Schulenberg, Vondrack, & Crouter, 1984). 부모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부모의 직업 지위(Krippner, 1963)나 고용 상태(Rosenthal & Hansen, 1981) 등 구조적 변인이 주로 언급되었으나, 최근에는 그보다 가족의 지지(Hill, Ramirez, & Dumka, 2003), 부모의 양육태도(Kracker, 1997) 및 애착 등 부모-자녀 관계(Rainey & Borders, 1997)와 같은 과정 변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아기 때에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기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활발히 탐색하게 되는데(Ainsworth, 1989), 동일한 맥락으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후기 청소년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16세-24세의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Lee & Hughey(2001)의 연구에서 부모 애착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보다도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평균 12.85세의 초기 청소년들에게서도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모가 10대들 사이에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할수록, 자녀의 결정에 격려를 할수록, 자녀를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할수록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증가하였다(Keller & Whiston, 2008). 이

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하여 부모애착은 초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면 대표적으로 학업성취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했다. Wallace-Brosious, Serafica와 Osipow(1994)는 평균 14.5세와 17.6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발달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학업적 역량과 진로성숙도 간 정적 관련을 보였다. 평균 연령 14.5세인 중학생 집단에서는 학업적 역량이 높을수록 진로 확실성과 계획성은 높아지고 진로 미결정은 낮아졌으며, 평균 연령 17.6세인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학업적 역량과 진로 확실성 간의 유의한 정적 관련은 사라졌지만 학업적 역량과 진로 계획성 및 진로 미결정 간에는 여전히 유의한 관련이 보고되었다. 특히, 진로 계획성과는 매우 강한 정적 관련이 나타나 학업적 역량이 높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도 적절히 세우며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 변인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황매향과 임은미(2004)의 연구에서 무동기는 진로성숙도와 강한 부적 상관을, 자율적 동기는 진로성숙도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 동기가 없는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낮고, 학업과 관련하여 자율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 김정원과 김옥인(2007)은 보다 직접적으로 학업성취 수준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성숙도의 결정성, 직

업이해능력, 자신타해능력, 직업선택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학업성취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김정원과 김옥인(2007)은 진로성숙의 능력과 관련되는 요인은 정의적 특성인 자아개념보다 인지적 특성인 학업성취가 더 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초등학교의 진로성숙도의 4년간의 발달궤적(초4-중1)의 형태와 개인차를 탐색하며, 둘째, 초등학교의 부모애착과 학업성취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궤적의 형태는 어떠한가, 그에 대한 개인차는 유의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애착과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4학년생의 4년간의 진로성숙도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초 4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2004년을 시작으로 1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종단자료로서, 현재 2007년까지 이루어졌다. 총 2844명의 연구대상자들은 2004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2007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표본유지율은 96.2%, 4차년도 표본유지율은 89.9%였다. 4차년

도에는 초등학교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표본유지율이 이전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90%에 가까운 유지율을 보여 1차년도의 연구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으로 판단된다. 표본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며, 표본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이 1524명(53.6%), 여학생이 1320명(46.4%)이었으며 연령은 2435명(85.6%)이 11세였다. 그 외 10세 404명(14.2%), 12세 5명(0.2%)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59명(5.7%), 고졸 1207명(43.3%), 전문대졸 268명(9.5%), 대졸 976명(35.0%), 대학원 이상 178명(6.4%)였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190명(6.8%), 고졸 1695명(61.0%), 전문대졸 211명(7.6%), 대졸 642명(23.1%), 대학원 이상 41명(1.5%)였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이 789명(28.3%)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425명(15.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06명(14.6%), 판매직 399명(12.2%) 등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무직(가정주부)이 1410명(49.9%)으로 전체의 절반이었으며 그 외 판매직 427명(15.1%) 등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 194명(7%), 101-200만원 789명(28.5%), 201-300만원 883명(31.8%), 301-400만원 483명(17.5%), 401만원 이상 422명(15.2%)였다.

2. 측정 도구

1) 진로성숙도

KYPS의 설문지 중 진로성숙도로 구성된 다음의 7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아직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많

이 알지 못한다.’ ‘나는 현재, 직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나는 현재, 장래 직업선택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나는 현재, 나의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잘 반영한다.

각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2004년 .656, 2005년 .716, 2006년 .725, 2007년 .772였다.

2) 부모애착

KYPS의 설문지 중 부모 애착으로 구성된 다음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주로 정서적인 친밀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이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2004년 .762였다.

3) 학업성취

KYPS의 설문지 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등 5과목의 각각에 대하여 ‘학생의 지난 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5문

항).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이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2004년 .713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7.0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종단자료의 변화패턴을 검증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법이며 홍세희(200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변화패턴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인의 값이 선형으로 변화하는지 곡선으로 변화하는지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둘째,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한지 알 수 있다.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집단의 평균을 사용하므로 개인차의 유의 정도는 알 수가 없었으나 잠재성장모형에서는 변인의 변량에 대한 유의도를 통해 개인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개인차가 있다면, 예측변인들을 설정하여 그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4년 종단자료를 통해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의 변화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의 형태와 개인차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개인차가 유의하다면, 1차년도 부모애착과 학업성취를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부모애착과 학업성취가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가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i>M</i>	<i>SD</i>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2004부모애착	22.40	4.39	-.350(.046)	-.192(.092)
2004학업성취	16.90	3.20	-.049(.047)	.331(.095)
2004진로성숙도	24.00	6.30	-.503(.046)	-.044(.092)
2005진로성숙도	24.58	6.49	-.654(.047)	.418(.094)
2006진로성숙도	25.15	5.90	-.668(.047)	.968(.095)
2007진로성숙도	24.71	6.15	-.785(.049)	1.473(.098)

<표 1>에 제시되었다. 2004년(초 4)부터 2007년(중 1)까지의 진로성숙도의 평균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평균이 점점 증가하다가 2007년에 평균이 갑자기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의 이러한 변화패턴이 유의한지 이후의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로써, 본 연구에서 예측변인들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이후의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에서 부모애착과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표 2>을 통해 제시되었다.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함으

3. 진로성숙도의 변화모형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진로성숙도가 어떠한 형태의 발달궤적을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선형성장모형과 제곱성장모형을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1. 2004 부모애착	2. 2004 학업성취	3. 2004 진로성숙도	4. 2005 진로성숙도	5. 2006 진로성숙도	6. 2007 진로성숙도
1	1					
2	.334**	1				
3	.239**	.312**	1			
4	.186**	.229**	.353**	1		
5	.170**	.182**	.261**	.392**	1	
6	.122**	.127*	.196**	.269**	.382**	1

** $p < .01$

<표 3> 선형성장모형과 제곱성장모형의 적합도

	χ^2	df	유의도	NFI	CFI	RMSEA
선형성장모형	32.752	3	$p=.000$.975	.916	.059
제곱성장모형	4.278	1	$p=.039$.997	.967	.034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선형성장모형과 비선형인 제곱성장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의 대표적인 변화모형 형태 2가지이다. 선형성장모형의 초기치에서 각각 2004, 2005, 2006, 2007 진로성숙도로 가는 경로는 모두 1로 고정되고, 선형성장모형의 기울기에서 2004, 2005, 2006, 2007 진로성숙도로 가는 경로는 차례대로 각각 0, 1, 2, 3이 부여된다. 제곱성장모형에서는 초기치와 선형 기울기의 경우는 선형성장모형과 동일하나, 제곱 기울기가 추가되어 제곱 기울기에서 2004, 2005, 2006, 2007 진로성숙도로 가는 경로는 차례대로 각각 0, 1, 4, 9(선형 기울기 각 경로의 제곱)가 부여된다. 만약, 선형성장모형을 분석하여 적합도를 알아본 후, 선형성장모형에 제곱기울기를 추가하였을 때 χ^2 의 적합도가 개선되면 제곱성장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된다(Garber, Keiley, & Martin, 2002).

본 연구에서 선형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i^2=32.752$, $df=3$, $p=.000$, $NFI=.975$, $CFI=.916$, $RMSEA=.059$ 이었고, 이후에 제곱기울기를 추가하였을 때의 적합도는 $\chi^2=4.278$, $df=1$, $p=.039$, $NFI=.997$, $CFI=.967$, $RMSEA=.034$ 로 나타났다. χ^2 차이 검정을 통해 적합도의 개선 정도를 살펴본 결과, $\Delta\chi^2=28.474$ ($\Delta df=2$)로 나타나 적합도는 제곱기울기를 추가하였을 때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진로성숙도는 제곱성장모형의 발달궤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곱성장모형에서 초기치(17.405), 선형 기울기(10.042), 제곱기울기의 변량(0.889)이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이러한 발달궤적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 부모애착 및 학업성취가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진로성숙도는 제곱성장모형의 발달궤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발달궤적에는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렇다면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부모애착과 학업성취를 예측변인으로 추가하여 최대우도법을 통해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을 통해 제시되어 있으며 제시된 추정치는 모두 표준화계수이다. 모형은 $\chi^2=.195$, $df=2$, $p=.907$, $NFI=.1000$, $CFI=1.000$, $RMSEA=.000$ 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수준에서 수용되었다.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초기치가 높았으며($\beta=.201$, $p<.001$),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초기치는 높아지고($\beta=.352$, $p<.001$), 선형기울기의 증가속도는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2$, $p<.01$).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선형기울기의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은, 최대값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익

중, 2007).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진로성숙도의 초기치가 높았는데, 높은 수준의 초기치가 증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업성취가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eta=.352, p<.001$),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와 선형기울기 간의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r=-.474, p<.01$)를 고려해 볼 때 그 가능성이 더욱 타당해진다. 초기치와 기울기 간의 부적 상관은 초기치가 높을수록 기울기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며 초기치가 낮을수록 기울기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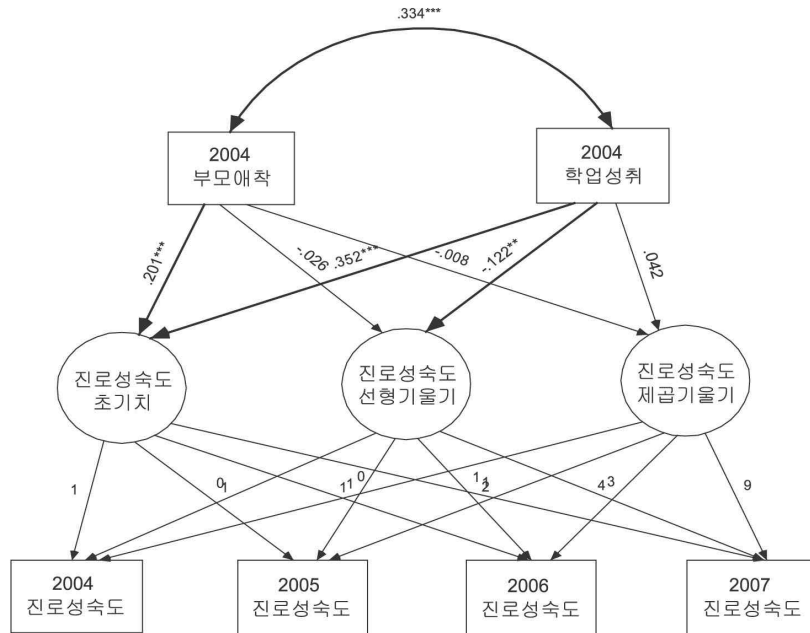
한편,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에는 부모애착과 학업성취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은 $\beta=$

.201($p<.001$), 학업성취가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은 $\beta=.352(p<.001)$ 로 각각 나타나 부모애착보다 학업성취가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4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중학교 1학년생까지의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을 추적하고 그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과 학업성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궤적은 선형성장모형이 아닌 제곱성



$\chi^2=.195, df=2, p=.907, NFI=.1.000, CFI=1.000, RMSEA=.000, N=2844$

** $p<.01$ *** $p<.001$

주. 진로성숙도의 초기치, 선형기울기 및 제곱기울기는 서로 모두 상관을 가정하였음.

<그림 1> 부모애착 및 학업성취가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장모형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진로성숙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락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점점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차정은 외, 2007; Gribbons, 1964; Lehman & Witty, 1929; Walls, 2000)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표집 대상 연령의 차이 혹은 분석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로 보인다. 차정은 외(2007), Gribbons(1964)의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비교한 연구이며, Lehman과 Witty(1929)는 8.5-18.5세의 광범위한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Wall(2000)의 연구에서는 각각 3, 6, 9, 12학년의 집단을 각각 횡단분석으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이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석방법도 지금까지와 달리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발달궤적을 추적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진로성숙도의 증가를 보이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교 전이 과정에서는 진로성숙도가 하락하는 변화패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지식도 함께 증가하였지만 중학교로 진학하여서는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교과목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전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에 따라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영역도 늘어나거나 달라져 선택에 있어 방향을 적절히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중학교에서 심화된 학습과목으로 인해 이전까지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에 대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다시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잠시 유예상태에 빠지게 되어 진로 선택에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은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의 진로성숙도는 평균적으로 비선형인 제곱성장모형의 발달궤적을 가지지만, 변량이 유의하여 모든 초등학생들이 동일한 초기치와 증가속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본 연구 결과, 그러한 개인차의 원인으로 부모애착과 학업성취의 영향이 검증되었다.

첫째,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초기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이 청소년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Blustein et al., 1991; Keller & Whiston, 2008; Lee & Hughey, 2001; Rainey & Borders, 1997). 아동기는 유아기에 비해 부모의 영향이 줄어들고,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들 사이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여전히 부모는 아동의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라는 Furman과 Buhrmester(1992)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부모애착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초기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역량과 진로성숙도 간의 유의한 관계를 검증한 Wallace-Brosious et al. (1994)의 연구와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아진다는 김정원과 김옥인(2007)의 연구와 모두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진로성숙도에 대한 부모애착과 학업성취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애착보다 학업성취가 진로성숙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성숙도에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의 인지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부모애착이라는 심리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인의 인지적 역량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을 보다 명료히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진로는 대부분 학문적인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부모나 교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그에 부합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게 된다. 때문에,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은 진로성숙도가 높아 지지만 학업적 영역 이외의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 적성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사회적 기대 간의 불일치로 인해 진로 선택에 있어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학업성취는 진로성숙도의 선형기울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업성취와 진로성숙도의 선형 기울기 간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는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선형 기울기의 증가속도는 둔화되었다. 이는 최대값의 한계 때문으로서(정익중, 2007), 학업성취의 초기치가 높은 아동들은 진로성숙도의 초기치도 높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초기치가 진로성숙도의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둔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사이의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은 비선형인 제곱성장 모형으로서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진로성숙도가 점점 증가하였지만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이기에서는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여 경험하게 되는 진로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나 교사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며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에는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부모애착과 학업성취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아동과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을 통해 심리적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학업성취는 부모애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인지적 역량이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학문적 분야에만 진로 선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 분위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인지적 역량 향상을 위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의 다양한 흥미와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과는 달리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탐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4년간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그 발달궤적을 규명하고 유의한 개인차를 검증하였으며 개인차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부모애착과 학업성취의 영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선택에 대한 개입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교 전이과정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가지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진로성숙도의 발달패턴이 이후의 시기에도 지속되는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 초등학교 시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진로성숙도가 중학교 1학년 시기에서는 하락하였는데, 중학교에 진학하여서 하락하는 발달패턴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지속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승곡선을 보이는지, 보다 광범위한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이 비선형인 제공성장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예측변인인 부모애착과 학업성취는 모두 제공 기울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을 통해 제공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학생에 관련된 예측변인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변인,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른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궤적의 탐색도 권장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은 부모애착과 학업성취가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면 학업성취는 부모애착의 영향을 받게 된다(이재훈·김경근, 2007; LeCroy & Krysik, 2008; Steinberg, Elmen, & Mounts, 1989). 즉, 학업성취가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를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학업성취는 교사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이재훈·김경근, 2007; LeCroy & Krysik, 2008; Samdal, Wold, & Bronis, 199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보면, 부모·교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성취가 촉진되어 결국 진로성숙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신의 적성과 진로

에 대해 깊이 있게 의논할 수 있어 진로 결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으로 이러한 경로를 설정하여 분석해 볼 것이 권장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표본의 누락이 다소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누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고려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신뢰도는 우수하였으나, 다소 적은 문항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도구를 보다 강화하여 분석해 볼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수리·이재창(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정원·김옥인(2007).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수준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6(4), 75-82.
- 박완성(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87-101.
- 유우경·조아미(2007).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639-660.
- 이윤주·현정화(2003).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의 관계. *교육학논총*, 24(2), 29-43.
- 이재훈·김경근(2007).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13(2), 175-208.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

- 측요인 :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89-121.
- 차정은 · 김아영 · 이은경 · 김봉환(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21(4), 923-944.
- 홍세희(2008).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매향 · 임은미(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Creed, P., Prideaux, L. A., & Patton, W.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areer decisional states in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397-412.
- Crites, J. O. (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2nd ed). Monterey, CA : McGraw-Hill/CTB.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Garber, J., Keiley, M. K., & Martin, N. C. (2002).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 Predictors fo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79-95.
- Gribbons, W. D. (1964). Changes in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from the eighth to the tenth grad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2, 908-913.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 Hill, N. E., Ramirez, C., & Dumka, L. E. (2003). Early adolescents' career aspirations : A qualitative study of perceived barriers and family support among low-income ethnically divers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4(7), 934-959.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 King, S. (1989). Sex differences in a causal model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208-215.
- Kracke, B. (1997).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341-350.
- Krippner, S. (1963). Junior high school students' vocational preferences and their parents' occupational level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1, 590-595.
- LeCroy, C. W., & Krysik, J., (2008).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ttach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s. *Children & Schools*, 30(4), 197-209.
- Lee, H., &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freshmen from intact famili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4), 279-293.
- Lehman, H. C., & Witty, P. A. (1929). The constancy of vocational interest. *Personnel Journal*, 8, 253-265.
- Lent, R. W. (2005).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101-127). NJ : Wiley.
- Levinson, E. M., Ohler, D. L., Caswell, S., & Kiewra, K. (2001). Six approaches to the assessment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nseling & devel-*

- opment*, 76, 475-482.
- Ohler, D. L., Levinson, E. M., & Hays, G. M.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congruence, consistency, differentiation, and career maturity, among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3, 50-60.
- Rainey, L. M., & Borders, L. D. (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60-172.
- Rosenthal, D., & Hansen, J. (1981). The impact of maternal employment on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s and personal development. *Sex Roles*, 7(6), 593-598.
- Samdal, O., Wold, B., & Bronis, M. (1999).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erceptions of school environment, their satisfaction with school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 An international study.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10(3), 296-320.
- Schulenberg, J. E. Vondrack, F. W., & Crouter, A. C. (1984).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129-143.
-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 Wallace-Broschious, A., Serafica, F. C., & Osipow, S. H. (1994).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 Relationships to self-concept and identity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1), 127-149.
- Walls, R. T. (2000). Vocational cognition : Accuracy of 3rd-, 6th-, 9th-, and 12th- 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137-144.

2008년 12월 16일 투고, 2009년 3월 2일 수정
2009년 3월 13일 채택